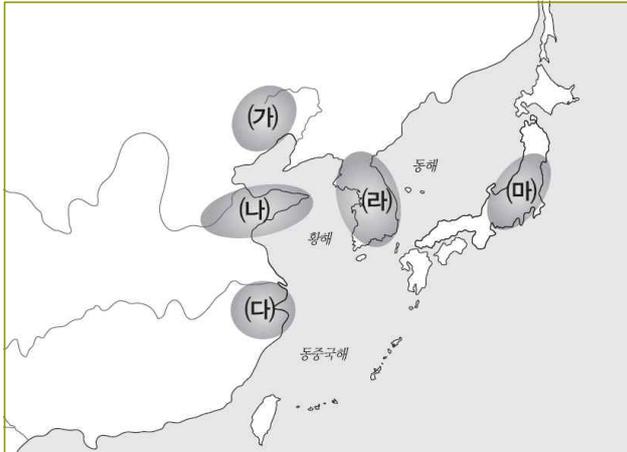


01

다음 (가) ~ (마) 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굽은 새끼줄 무늬가 특징인 토기가 제작되었다. (○ : ×)
- ② (가) - 여신 숭배를 짐작할 수 있는 여신 얼굴상이 출토되었다. (○ : ×)
- ③ (가) - 옥기와 신전을 특징으로 하는 량주(良渚) 문화로 발전하였다. (○ : ×)
- ④ (나) - 벼씨가 발견되어 벼농사가 처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
- ⑤ (나) - 돼지, 새, 꽃 등이 새겨진 흑도가 제작되었다. (○ : ×)
- ⑥ (나) - 물고기 무늬와 사람 모습 등을 그려 넣은 채도가 주로 만들어졌다. (○ : ×)
- ⑦ (다) - 빗살무늬를 비롯한 다양한 토기를 제작하였다. (○ : ×)
- ⑧ (다) -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발 달린 솥이 출토되었다. (○ : ×)
- ⑨ (다) - 종 모양 청동기(동탁) 등 청동 제기와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 : ×)
- ⑩ (라) - 고인돌을 통해 지배 계급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⑪ (라) - 거대한 돌무지무덤에서 용 모양을 새긴 옥기가 많이 발굴되었다. (○ : ×)
- ⑫ (마) - 농경보다는 어로, 사냥, 채집 경제가 발달하였다. (○ : ×)
- ⑬ (마) -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되었고, 30여 개의 소국이 등장하였다. (○ : ×)
- ⑭ (마) - 전기에 홍도, 후기에는 흑도와 백도가 발달하여 훗날 룡산 문화로 이어졌다. (○ : ×)
- ⑮ (가) ~ (마)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

㉠ [] ㉡ [] ㉢ [] ㉣ [] ㉤ []



Plus [] 토기



(가) ~ (마) 각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바람의 제국을 가다!

(가)	• 목탁 - 최초로 제국을 이루다.
(나)	• 탁발도 - 초원의 늑대, 중원을 품다.
(다)	• 아울웅서 - 정복과 관용의 두 얼굴
(라)	• 쿠빌라이 - 칸의 제국, 팩스 몽골리카
(마)	• 누르하치 - 북방의 후예, 라오동을 장악하다.

- ① (가) -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를 형성하였고, 선우 아래 좌현왕·우현왕을 두었다. (○ : ×)
- ② (가) - 혈연을 기초로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하였다. (○ : ×)
- ③ (가) -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냈다. (○ : ×)
- ④ (가) - 한 무제를 굴복시키고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 : ×)
- ⑤ (나) - 튀양으로 천도한 이후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 ×)
- ⑥ (나) -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 : ×)
- ⑦ (나) - 거대한 무덤(전방후원분)을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였다. (○ : ×)
- ⑧ (나) - 야마타이국과 교류하였다. (○ : ×)
- ⑨ (다) - 남추밀원을 설치하였다. (○ : ×)
- ⑩ (다) -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 ×)
- ⑪ (다) - 발해를 멸망시키고, 대월을 공격하였다. (○ : ×)
- ⑫ (다) -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이원호를 신하로 삼았다. (○ : ×)
- ⑬ (라) - 색목인을 재정 관료로 등용하였다. (○ : ×)
- ⑭ (라) - 호라즘을 정복하고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였다. (○ : ×)
- ⑮ (라) - 제국 전역에 교초(交鈔)가 통용되었다. (○ : ×)
- ⑯ (라) - 후진의 석경당으로부터 연운 16주를 할양받았다. (○ : ×)
- ⑰ (라) - 주요 부족장들이 참여한 쿠릴타이를 통해 칸의 선출, 군사적 행동 등을 결정하였다. (○ : ×)
- ⑱ (마) -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이 편찬되었다. (○ : ×)
- ⑳ (마) - 예도 막부와 국교를 체결하였다. (○ : ×)

▶ Plus (가) =

* (나) =

- 왕이 황제를 도와 내란을 평정하였으므로 황제의 총애와 대우가 비길만한 것이 없었다. 마침내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 주겠다고 황제에게 요청하고 태위(太尉)로서 (가)의 수도에 있는 사저에 머무르며 만권당을 짓고 독서를 즐겼다. ……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원명선, 조맹부 등과 상중하면서 학문이 더욱 증진하였으므로 칭찬과 탄전이 멈추지 않았다.
- 안향이 (가)에 가는 박사 김문정 등에게 남은 돈을 맡겨 중원에 전해져 오는 공자와 그 제자 70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아울러 제기(祭器)·악기(樂器)·6경(經)과 역사서 등을 구해 오게 하였다.

대대로 우리 조정은 여러 나라를 우대하며 은혜를 후하게 베풀어 왔건만, (나)이/가 일으킨 병란 때문에 수도를 임안(항저우)으로 옮긴 이후로 주변국과의 사신 왕래는 점점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근자에 서하의 밀사가 와서 귀국에 가고자 하기에 오돈례를 먼저 귀국에 보내 예전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귀국은 (나)와/과 바로 이웃하고 있으니 사신이 왕래하는 편에 (나)에 계신 휘종·흠종 두 황제를 문안하려 했을 따름이다. 군사를 일으켜 서로 돕는 다든가 길을 빌려 정벌에 나선다라는 말은 모두 오돈례 등이 사사로이 한 말일 뿐 조정에서 지시한 바가 아니니 깊이 잘 헤아려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03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내가 말하는 치지격물(致知格物)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는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의 천리를 사물에 이르게 하면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결국 나의 입장은 심(心)과 이(理)를 합쳐 하나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 『전습록(傳習錄)』

- ① 명 대 왕수인(왕양명, 1472~1528)이 집대성하였다. (○ : ×)
- ②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 ×)
- ③ 지행합일의 구체적인 실천을 중시하였다. (○ : ×)
- ④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였다. (○ : ×)
- ⑤ 춘추의 해설서 중 『공양전』을 정통으로 삼았다. (○ : ×)
- ⑥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로 『대학』을 강조하였다. (○ : ×)
- ⑦ 공자, 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추구하였다. (○ : ×)
- ⑧ 서원과 향약이 확산되고, 전례(典禮)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 : ×)
- ⑨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일본에 전래되었다. (○ : ×)
- ⑩ 『본초강목』, 『천공개물』, 『농정전서』 등이 편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 ×)
- ⑪ 공영달의 『오경정의』를 통해 집대성되었다. (○ : ×)
- ⑫ 『부모은중경』이 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 : ×)
- ⑬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였다. (○ : ×)
- ⑭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성행하였다. (○ : ×)
- ⑮ 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밝히고 육경을 강조하였다. (○ : ×)
- ⑯ 일본에서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는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 : ×)
- ⑰ 대의명분과 화이관(華夷觀)을 중시하였다. (○ : ×)
- ⑱ 『사고전서』 등의 편찬 사업으로 발달하였다. (○ : ×)
- ⑲ 조선에서는 정제두에 의해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 ×)
- ⑳ 『해체신서(解體新書)』 간행의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 (○ : ×)

▶ Plus

* (가) 인물 = _____

〈자료로 보는 동아시아의 사상〉

하늘이 사람을 낳을 때 인의예지의 이(理)를 부여하지 않음이 없거늘 어찌 (사람으로서) 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늘이 만물을 낳으려고 할 때 반드시 기(氣)가 있는 다음에야 그 사물이 응집하여 형체를 이루는데, 기라는 것은 맑음과 탁함,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맑고 밝은 기를 받아 욕망에 얽매임이 없으면 성인이 됩니다. 어둡고 탁한 기를 내려받은 데다가 또한 욕망에 가려져서 그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해설] 자료는 1194년 (가) 이/가 위산현에서 강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가) 이/가 인간의 본성이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와 같아 순수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격물치지와 거경공리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 유학 사상 = _____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 어찌 부모에게서 효(孝)의 도리를 찾는단 말인가?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 어찌 임금에게서 충(忠)의 도리를 찾는단 말인가? 벼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어찌 벼와 백성에게서 신(信)과 인(仁)의 도리를 찾는단 말인가? 심즉리(心卽理)일세. 마음에 사욕의 가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天理)인 것이니, 조금이라도 밖에 있는 대상에서 이치를 궁구하여 가져와 보탬 것이 없네. '온전하게 천리를 따르는 이 마음'이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효이고, 임금을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충이고, 벼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신이고 인이네. 단지 이 마음에서 인욕을 버리고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라네.